

# 통일속보

2001년 9월 23일 2001.9.23



## 남북대화 및 실천사업 전면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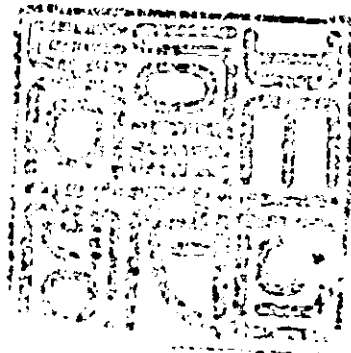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해설자료-

2001년 9월 15일에서 9월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해설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개 요	1
2.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의의	3
3. 주요 합의 내용	5
4. 이번 회담의 특징	11
5. 향후 추진일정	12

※ 부 록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1. 개 요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 9. 15~18 서울에서 개최
  - 대표단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접촉 등을 진행하여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
  - \* 김대중 대통령 북측 김령성 단장 일행 접견(9.17)
  - \* 이번 회담은 당초 3. 13 개최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불참 통보로 6개월여 만에 재개
- 제6차 장관급회담을 10.28~31 개최기로 합의

### 〈 합 의 사 항 〉

1. 당국간 대화·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2.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3.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간 회담 개최 합의
  - 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
  - ②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접촉 개최

- ③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10.4 개최
- ④ 남-북-러 철도 연결 협력,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 ⑤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를 협의하기 위해 해운 실무 접촉 개최
- ⑥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대책 협의를 위해 11월중 현지 조사 착수
- ⑦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빠른 시일내 발효
- ⑧ 동해 공동어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개최
- ⑨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협의회 개최

4. 태권도 시범단 교환 (10월 북측 시범단, 11월 남측 시범단)

5. 제6차 장관급회담, 10.28~31 개최

## 2.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의의

- 금번 회담 및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쌍방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계기 마련
  - 남북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상호 확인
  - 특히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별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 당국간 회담의 연속성 유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및 빠른 시일내 분야별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 확보
-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는 되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협력사업의 실질적 이행에 착수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 금강산 육로 개설을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활성화 토대 마련

- 특히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발생 등 복잡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많은 부분에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정상회담이후 달라진 남북관계를 체감
  - 국제적인 위기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당초 합의한대로 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공헌
  -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결과로 평가



### 3. 주요 합의 내용

#### ① 당국간 대화와 협력과 함께 민간 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 적극 지원

- 6.15 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차원에서는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 군사, 적십자 등 분야별 회담을 활성화하고 각종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이같은 당국 차원의 대화·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각종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쌍방 당국이 적극 지원하고 보장
  - 앞으로 문화, 언론, 종교, 학술 등 각 분야별 민간 교류가 당국의 지원아래 질서있게 추진되어 남북간 신뢰회복 및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민족화해의 기운을 고양시키고 민족동질성을 심화시켜, 남북관계 진전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
- 남북당국이 앞장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 향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② 추석을 계기로 10.16~18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남북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
  - 이는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이산의 고통과 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
- 우리측은 회담 과정에서 시종일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으며,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해결방안을 북측에 제시
  - 북측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만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협의하자는 자세
- 정부는 금번 합의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
  - 회담이 개최되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 최우선 협의

③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조기 착수 및 개통에 합의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는 대로 곧 공사에 착수하고 빠른 시일내 개통기로 합의
  - 비무장지대내 철도공사는 수개월 정도면 완료될 수 있으므로 내년 초 우선 개성공단에도 연결 가능
-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육로를 통한 수송으로 남북경협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가 절감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 활성화에 기여
  - 특히 개성공단에 우선 연결되면 공단건설 조기 완공 및 공단에 입주할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제고
  - 장차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 기지로 발전
-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첫 사례로 되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가시적 조치로서 실질적인 남북간 긴장완화에도 기여

#### ④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의 토대 마련

-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송현리-고성간 도로 연결 및 금강산지역 관광특구 법제화 촉구
- 10.4 당국간회담을 개최하여 육로연결 등 관광활성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키로 합의
- 향후 동해안 도로가 연결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육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어 관광사업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
- 금강산 관광사업은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남북이 함께 화합과 상호협력을 다지는 시범적 사업
  - 이번 회담으로 그 동안 어려움을 겪던 금강산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또한 금강산 육로가 연결되면 서해안 지역의 경의선과 함께 한반도의 양대 물류축이 이어짐으로써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⑤ 남북간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회담 개최 합의
-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10.23~26 개최
  - 개성공단,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동해 공동어로 등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조기 개최
  - 남-북-러 철도 연결 협력, 가스관 연결 검토, 경험 4개 합의서 발효
  -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를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일정에 합의하고 각종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

-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개성공단 건설,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 동해 공동어로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경제분야 당국회담이 개최되면

- 남북간 경제협력의 규모와 폭을 확대하고 제도화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북-러 철도연결(TKR-TSR) 및 가스관 연결사업 등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고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

-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남북 모두의 공동 발전에 기여

## ⑥ 태권도 시범단 교환

- 남북 태권도 시범단 상호 교환에 합의하고 10월중 북측 시범단, 11월중 남측 시범단을 상대측에 파견기로 합의
-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전통 무예인 태권도 교류가 추진 되면 스포츠 분야에서부터 남북간 이질성을 해소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출발점
-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좋은 계기
- 태권도 시범단 교환은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그동안 실천되지 못했던 사안
- 김운용 IOC위원 방북시(2001.6.19~22)에도 태권도 시범단 교환의 실시에 합의
- 이러한 태권도 교류는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해와 단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 이번 회담의 특징

- 이번 회담은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의 계속성 유지와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 남북 쌍방은 상호 이해, 존중의 바탕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실사구시」적 접근방식에 따라 각종 현안문제를 협의·해결
  -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합의 도출
- 우리측은 이번 회담 전과정을 통해 짚을 것은 짚어 나가는 당당한 태도를 견지하며 주도적으로 회담을 진행
  - 특히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제5차 장관급회담의 일방적 연기, 北상선의 우리측 영해 무단 통과, 8.15 남북공동행사시 물의 야기 등에 대해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
- 수석대표를 포함한 쌍방대표단이 대폭 교체된 것을 계기로 상호 존중을 토대로 '새로운 남북회담 형식'을 도입

- 과거 정형화된 관행과 격식을 탈피하여 화해와 협조 정신이 강조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회담진행이 시종일관 계속

\* 남북대표단의 회담장 동시 입장 → 초청측인 우리가 선 입장하여 맞이하는 형식

## 5. 향후 추진일정

- 10.4 금강산 관광 활성화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
- 10.16~18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10.23~26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 10.28~31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10월중 북측 태권도 시범단 방한
- 11월중 남측 태권도 시범단 방북
- 11월중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 착수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 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 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한다.
-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한다.
  -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 울

